

키프로스 구제금융안 분석 및 전망

오태현 국제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3460-1159)

차 례 ●●●

1. 키프로스 구제금융안 주요 내용 및 쟁점
2. 키프로스 구제금융의 원인
3. 키프로스 구제금융 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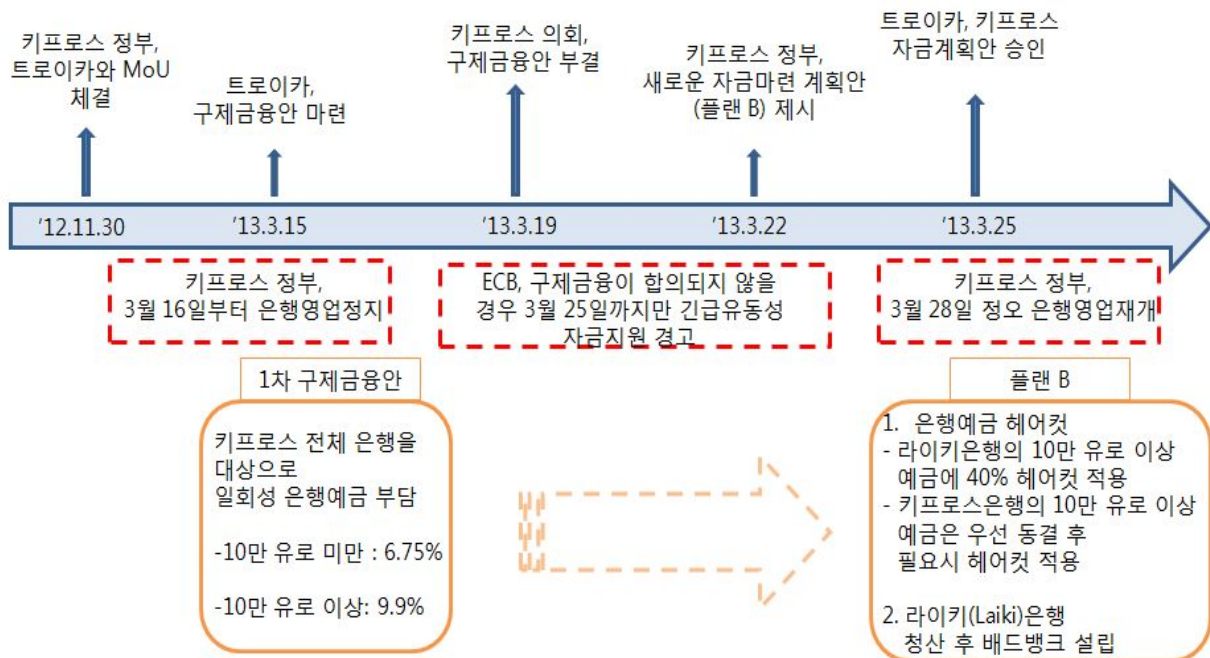
주요 내용 ●●●

- ▶ 3월 25일 트로이카(EU, 유럽중앙은행, IMF)가 키프로스 정부가 제안한 구제금융 수정안(일명 ‘플랜 B’)을 승인함으로써 키프로스는 유로존 국가로는 다섯 번째로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가 됨.
 - 키프로스 제2위 은행인 라이키은행의 10만 유로 이상 예금에 대해 최대 40%의 헤어컷(손실 부담)이 적용되며, 양질자산과 악성자산을 구분하여, 양질자산과 10만 유로 미만 예금은 키프로스은행으로 이전된 뒤 청산절차를 밟게 됨.
 - 제1위 은행인 키프로스은행의 10만 유로 이상 예금은 우선 동결되고 향후 필요시 최대 30%의 헤어컷이 적용됨.
- ▶ 키프로스의 구제금융은 유럽 재정위기 과정에서 이루어진 구제금융 가운데 예금에 대한 헤어컷이 적용(당초 트로이카는 예금 과세를 요구했으나 철회)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유입된 러시아 자본에 대한 유로존의 구제금융 지원 여부라는 정치적인 쟁점을 부각시킴.
 - 트로이카는 앞서 네 번의 구제금융에서 은행예금에 대한 보호를 우선시켰으나, 이번 키프로스의 경우 고액 예금자도 손실부담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확대적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시장의 우려가 제고됨.
 -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100억 유로인 점을 감안할 때, 키프로스 구제금융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키프로스 전체 은행예금 680억 유로 중 약 200억 유로가 러시아 자본인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임.
- ▶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 합의로 일단 위기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은행영업 재개(3월 28일) 이후 뱅크런 가능성, 추가적인 자금마련 계획 필요성, 원활한 은행 구조조정 여부 등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키프로스 위기는 “단기적 위기완화 및 중기적 위협요인 상존”으로 평가됨.
 - 구제금융 방식의 확대적용과 관련해 EU 기관 간 상이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만큼 뱅크런이 키프로스는 물론 스페인, 그리스 등 기존 구제금융국으로 확대될 가능성 또한 상존함.
 - 키프로스는 그동안 누리던 금융허브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개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제위기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1. 키프로스 구제금융안 주요 내용 및 쟁점

- **(구제금융안 합의)** 3월 20일 키프로스 의회에서 부결된 구제금융안의 수정안을 3월 25일 트로이카가 승인함으로써 키프로스 구제금융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됨.
- 지난 3월 15일 트로이카(EU 집행위, 유럽중앙은행(ECB), IMF 세 기관을 지칭)는 키프로스 정부가 요구한 170억 유로의 구제금융에 대해 100억 유로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은행예금에 대한 과세를 통해 해결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은행예금 과세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3월 19일 키프로스 의회가 이를 부결시킴.
 - 당초 구제금융안에 따르면 10만 유로 이상 예금에 대해서는 9.9%, 10만 유로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6.75%의 부담금이 부과되며, 대신 예금주들은 해당 금액만큼의 은행지분을 소유하게 됨.
 - 트로이카는 예금 과세를 통해 약 58억 유로 규모의 자금이 조달될 것으로 추정하면서 동 자금이 부실은행 지원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함.
- 키프로스 정부는 의회의 구제금융안 부결 직후 새로운 자금계획안을 담은 '플랜B'를 마련하였음. 이를 트로이카가 3월 25일에 승인함으로써, 키프로스는 유로존 국가로는 5번째로 EU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됨.
 - * 키프로스 정부는 2012년 6월 구제금융을 신청한 바 있으나, 당시 공산당 정부는 구제금융 규모와 재정긴축 방식을 두고 국제채권단과 이견을 표출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구제금융 규모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음. 2013년 2월 23~24일 대선에서 구제금융안에 대해 적극적인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디스(Nicos Anastasiades)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구제금융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탐.

그림 1. 키프로스 구제금융안 합의 과정 및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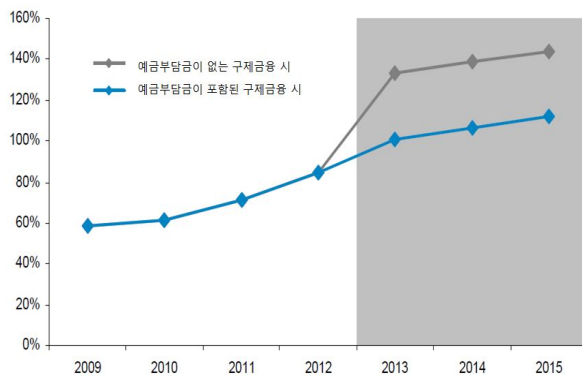


자료: 언론 및 키프로스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 **(구제금융의안 주요 내용)** 트로이카의 100억 유로 지원 이외에 키프로스 정부의 새로운 자금마련 계획안이 2개 대형 은행 예금에 대한 헤어컷과 은행자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42억 유로의 자금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자금마련 계획안은 키프로스 전체 은행의 모든 예금에 대한 과세를 대신하여 키프로스 제2위 은행인 라이키은행(Popular Cyprus Bank 또는 Laiki Bank)의 10만 유로 이상 예금에 대해 최대 40%의 헤어컷 적용(손실 부담)과 더불어 채권자 및 은행주주에 손실부담을 부과함.
 - 한편 키프로스 정부는 라이키은행의 자산을 양질자산과 악성자산으로 구분하여 양질자산과 10만 유로 미만 예금은 키프로스 은행(Bank of Cyprus)으로 이전하고 악성자산은 배드뱅크 설립 후 관리함.
 - 제1위 은행인 키프로스은행의 10만 유로 이상 예금에 대해서는 우선 예금동결조치 후에 향후 필요에 따라 20~30%의 헤어컷이 적용되며, 라이키은행이 받던 90억 유로의 유럽중앙은행(ECB) 긴급유동성지원(ELA: Emergency Liquidity Assistance)도 키프로스은행으로 이전됨.
 - * ELA는 ECB의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 부족으로 인해 ECB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국가의 중앙은행들에 재원을 대출해주는 방안임.
 - 트로이카는 100억 유로의 직접 지원 자금이 은행권 구제금융에 사용되지 않아야 함을 조건으로 부과함.
 - 키프로스 정부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은행예금에 대한 과세를 대신해서 의회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은행구조조정에 헤어컷을 적용하기로 결정함.

- **(구제금융의 쟁점 1: 예금에 대한 과세)** 관리 가능한 국가채무 수준을 위해 트로이카는 은행예금에 대한 과세를 결정했으나, 키프로스 의회는 국민적 불만을 우려하여 이를 부결시킴.
- 1차 구제금융안에 따르면, 트로이카는 키프로스 정부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58억 유로에 해당하는 은행예금 과세를 결정함.
 - 트로이카는 키프로스가 요청한 170억 유로를 모두 지원할 경우 2015년까지 국가채무 수준이 GDP 대비 140%에 이르게 되고, 이 경우 키프로스 정부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 반면 트로이카는 은행예금 과세를 통해 키프로스의 국가채무가 100% 이내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함(그림 2 참조).
 - 동시에 트로이카는 은행예금에 대한 과세가 키프로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예외적 조치임을 강조함.

그림 2. 키프로스 국가채무 추정



자료: Morgan Stanley(2013); Zenios(2013).

표 1. 유로존 구제금융 지원 현황

국가	경제규모 ('11년 기준, 십억 달러)	구제금융 (십억 유로)
그리스	333 (1.7%)	2,400
스페인	1,493 (8.5%)	1,000
아일랜드	216 (1.2%)	850
포르투갈	238 (1.4%)	780
키프로스	25 (0.2%)	100

주: ()안 %는 EU 전체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3); Global Insight(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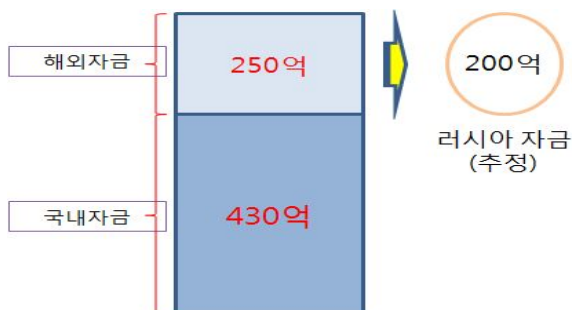
-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지원 시 은행예금이 보호된 것과 달리, 키프로스에 대해서만 은행예금 과세를 결정한 것에 대해 키프로스 국민 및 정치권과 더불어 EU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기됨.
- o 은행예금에 대한 과세에 대해 트로이카는 키프로스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 했으나,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원칙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다른 구제금융국 및 잠재적 구제금융국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선례를 마련했다는 우려가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됨.
- o EU 내부에서도 소액예금자에게 일방적으로 6.75%의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EU의 예금자보호 원칙에도 위배됨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최종적으로 은행예금에 대한 과세 조치는 철회되었으나, 고액 은행예금에 대한 헤어컷이 적용되면서 유럽 재정위기 과정에서 결정된 구제금융 중 처음으로 예금자 손실부담 조치가 결정됨.
- o 논란이 있었던 10만 유로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이번 구제금융 조치에 따른 자본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 **(구제금융의 쟁점 2: 정치경제적 변수로서의 러시아)** 트로이카가 상대적으로 작은 구제금융 규모에도 불구하고 키프로스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이유는 러시아라는 이질적인 변수 때문임.

- (경제적 변수 1: 예금) 키프로스 은행권의 전체 예금은 약 680억 유로임. 이중 250억 유로가 외국인 예금이며, 특히 200억 유로는 러시아계 자본인 것으로 추정됨.
- o 키프로스 고액 예금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결과적으로 러시아 자본의 손실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러시아 정치권에서는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결정을 노골적으로 비판함.
- (경제적 변수 2: 투자) 러시아의 제1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국가로서 키프로스는 2011년 기준 해외직접투자의 33.6%, 외국인직접투자의 28.3%를 차지할 만큼 양국의 경제관계는 밀접함.
- o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가 키프로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키프로스가 예로부터 조세피난처로 유명하다는 점과 키프로스의 세율이 EU 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3. 키프로스 은행예금 구성

(단위: 2012년 말 기준, 유로)



자료: Central Bank of Cyprus(2013).

표 2. 러시아 해외직접투자(ODI)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중 키프로스의 비중

(단위: 백만 달러)

	2009	2010	2011
ODI	302,188	365,961	361,738
키프로스	119,672 (39.6%)	153,933 (42.1%)	121,596 (33.6%)
FDI	378,837	489,256	455,904
키프로스	129,930 (34.3%)	179,217 (36.6%)	128,816 (28.3%)

주: ()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Central Bank of Russia(2013).

- (경제적 변수 3: 차관) 키프로스는 지난 2011년 러시아로부터 25억 유로의 차관을 받았으며, 현재 러시아에 차관상환 유예(2016년 → 2021년) 및 금리인하, 50억 유로의 신규 차관을 요청한 바 있어 예금 과세가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함.

- 키프로스의 사리스(Michalis Sarris) 재무장관은 은행예금 과세를 두고 러시아 정부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 러시아를 직접 방문했으나, 3월 22일 러시아 정부는 원칙적으로 은행예금 과세에 대해 반대함.
- (정치적 변수: 독일 vs 러시아)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는 키프로스에 대한 지원이 결국 러시아 자본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키프로스에 대한 지원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음.
- 9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의 납세자들의 돈으로 러시아 자본을 지원해줄 수 없다며, 마지막까지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반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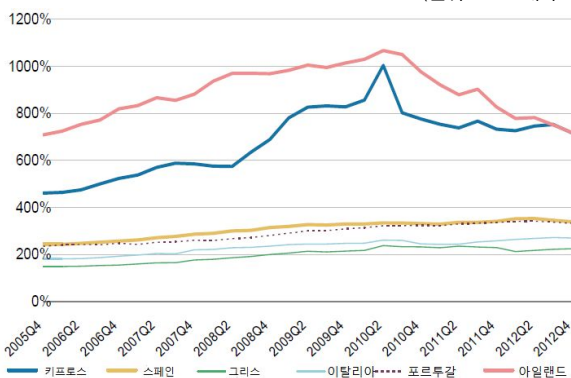
2. 키프로스 구제금융의 원인

■ (금융산업의 손실) 이번 구제금융의 신청 배경에는 키프로스의 금융위기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됨.

- 키프로스 제2의 산업인 금융산업은 관광산업과 함께 키프로스 경제를 견인하고 있음.
 - [그림 4]에서처럼 키프로스 은행의 전체 자산규모는 GDP의 800%로 유럽 국가 중 아일랜드와 비슷한 수준임.
 - 키프로스 금융산업의 성장 배경에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자본의 유입과 무관하지 않음.
- 키프로스 은행들은 유럽 재정위기를 겪으며 약 100억 유로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받았음. 이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과정에서 이루어진 채무탕감 및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증가에 따른 것임.
 -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 규모가 금액면에서는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GDP 대비 비중으로는 아일랜드와 유사한 40%에 이름.
 - 키프로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키프로스 은행들은 2011년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위해 단행된 채무탕감으로 인해 약 45억 유로의 손실을 기록함.
 - 또한 Deutsch Bank(2013)에 따르면 키프로스 은행 전체 부실대출에서 그리스에 대한 대출이 약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로 인해 키프로스 은행들은 2011년 말부터 국제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며, 유럽 중앙은행(ECB)의 긴급유동성지원을 통해 필요한 유동성을 대부분 지원받는 상황에 이름(그림 5 참조).

그림 4. 키프로스 은행총자산 규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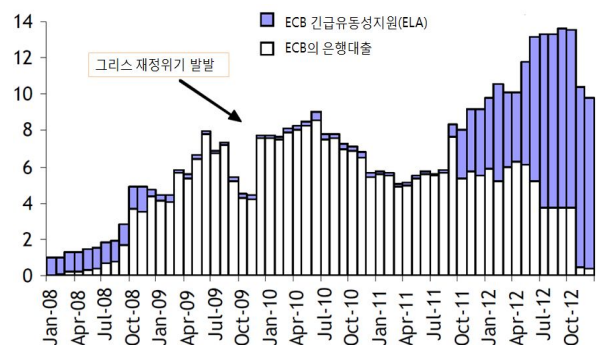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자료: Morgan Stanley(2013).

그림 5. ECB와 ELA의 키프로스 은행 지원

(단위: 십억 유로)



자료: Eurobank Research(2013).

■ **(취약한 경제펀더멘탈)** 키프로스는 2004년 EU 가입과 2008년 유로존 가입을 통해 작은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세가 제한되었으며, 취약한 경제펀더멘탈은 마이너스 경제성장세를 회복세로 전환시키기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낮은 경제성장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 된 이후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키프로스는 총 고정자본의 지속적인 감소세와 민간소비 위축으로 인해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함.
- (편중된 산업기반) 키프로스 제1의 산업은 관광산업으로 GDP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관광수입 감소 및 관련 산업의 위축이 민간소비 및 관련 산업의 투자축소를 초래함으로써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표 3. 키프로스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전년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GDP	3.6	-1.9	1.3	0.5	-2.4	-3.5	-0.9
민간소비	7.8	-7.5	1.5	0.2	-2.5	-3.5	-2.0
정부소비	6.1	6.8	1.0	-0.2	-2.4	-5.5	-2.7
총고정자본	6.0	-9.7	-4.9	-13.1	-22.0	-13.5	-6.0
수출	-0.5	-10.7	3.8	3.3	2.3	-0.9	0.6
수입	8.5	-18.6	4.8	-4.1	-5.5	-4.9	-2.3
재정수지	0.9	-6.1	-5.3	-6.3	-4.3	-4.5	-3.7
국가채무	48.9	58.5	61.3	71.1	86.9	99.5	1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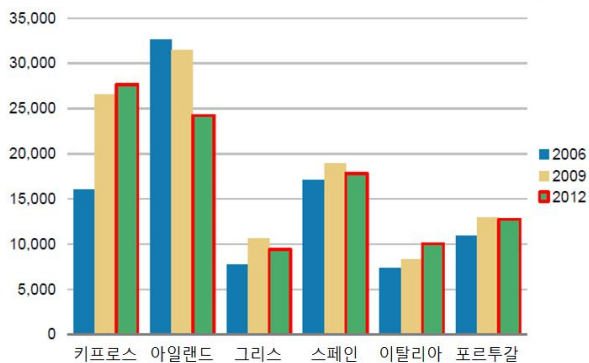
주: 2008~11년 지표는 실측치, 2012년은 추정치, 2013~14년은 전망치임.
자료: EU(2013).

■ **(상대적으로 높은 민간채무 수준)**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국가채무 수준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민간채무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키프로스 비금융기관 및 가계의 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른 남유럽 재정위기국과 비교해서도 1인당 채무수준이 최근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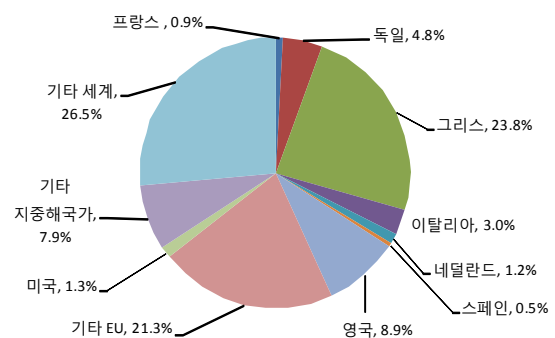
그림 6. 키프로스 민간채무 수준

(단위: 1인당 부채, 유로)



자료: Morgan Stanley(2013).

그림 7. 키프로스의 수출대상국



자료: Cyprus Statistical service(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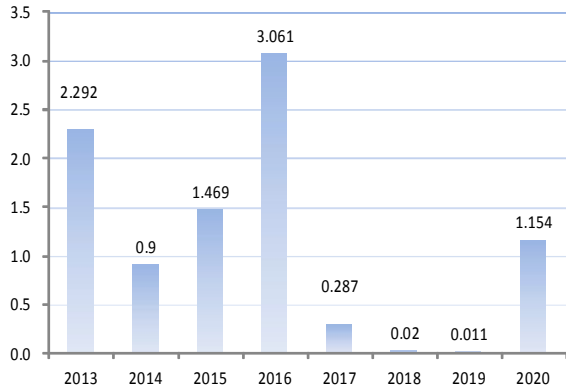
- **(비중확대 및 다양성이 요구되는 수출부문)** 키프로스는 경제규모 대비 수출이 전체 GDP의 42%를 차지하고 있어 개방경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수출부문의 비중 확대 및 다양화가 요구됨.
 - 키프로스와 유사한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인 아일랜드의 경우 수출이 GDP의 100%를 차지하고 있으며, 벨기에와 네덜란드도 GDP의 75%를 상회하고 있는 만큼 수출비중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
 - 수출비중 뿐만 아니라 키프로스의 수출대상국 및 분야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됨.
 - 부문별 수출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여행서비스이고 다음으로 교통서비스, 컴퓨터통신 서비스임. 이들 세 부문의 수출비중은 전체의 73%를 차지함.
 - 수출대상국의 경우도 [그림 7]에서처럼, 그리스에 전체 수출의 1/4이 집중되어 있는 등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요구됨.

3. 키프로스 구제금융 평가 및 전망

- **(평가 1: 새로운 구제금융 방식 vs 은행예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 하락)**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합의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듯 했으나, 새로운 형태의 구제금융 방식은 유로존 회원국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 트로이카가 은행예금에 대해 헤어컷 적용을 결정함으로써 지금까지 안전한 것으로 여겨지던 은행예금도 구제금융 하에서는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유로그룹 데이셀블룸(Jeroen Dijsselbloem) 의장 및 바호수(Jose Barroso) EU 집행위원장은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방식이 확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이에 유럽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키프로스 구제금융 방식의 확대적용 가능성을 일축하고 차단에 나서고 있음.
 - 특히 EU 기관 간 새로운 구제금융 방식의 확대적용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시장의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지금까지 신용평가기관들은 키프로스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해왔으며, 예금에 대한 헤어컷이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Fitch는 3월 26일 키프로스 구제금융안이 최종 승인된 후, 현재 B 등급을 유지하던 키프로스은행과 라이키은행의 신용등급을 제한적 디폴트 수준으로 강등시킴.
 - 키프로스의 국가신용등급이 제한적 디폴트 수준에까지 이를 수도 있음(표 4 참조).
- **(평가 2: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 개발 필요 vs 경제성장 모델로서의 금융허브)** 키프로스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금융허브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키프로스는 앞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함.
 - 키프로스는 낮은 세율과 적극적인 금융투자유치를 통해 금융허브로 자리 잡았으나, 예금 헤어컷 및 세율 인상 등의 조치로 외국인 금융투자가 위축되면서 금융허브의 지위를 상실함은 물론, 경제성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Société Générale은 은행예금에 대한 헤어컷 적용 등으로 인해 2017년까지 GDP가 20%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단기간에 외국자본이 키프로스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아직은 높지 않으나, 키프로스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대비는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이 요구됨.

그림 8. 키프로스의 연도별 국채만기 규모

(단위: 십억 유로)



자료: RBS(2013).

표 4. 신용평가기관별 키프로스 신용등급 및 전망

	신용등급		전망
	현재	'10년 말	
S&P	CCC ('13.3.22)	A	부정적 ('13.3.22)
Moody's	Caa3 ('13.1.10)	Aa3	부정적 ('13.1.10)
Fitch	B ('13.1.25)	AA-	부정적 ('13.1.25)

자료: Bloomberg(2013).

■ (평가 3: 독일과 러시아의 정치적 파워 게임) 이번 키프로스 구제금융 이면에는 독일과 러시아의 정치적인 파워게임이 작용했으며, 결과를 놓고 볼 때 독일의 정책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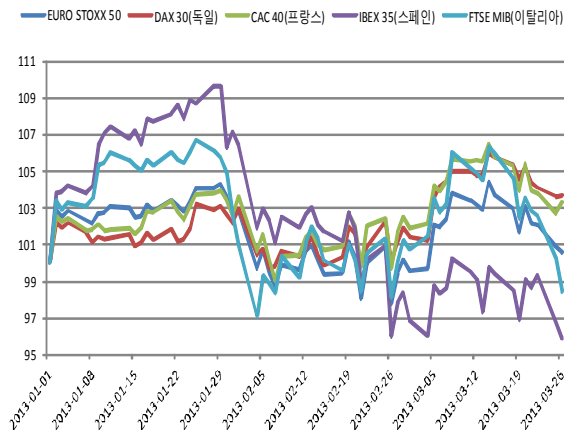
- 독일 정부는 예금자 손실부담을 통해 구제금융 부담을 줄이면서도 재정위기 위협을 줄이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음.
 - 실제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이번 키프로스 구제금융을 통해 국내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냈으며, 주요 언론들은 이번 키프로스 구제금융을 계기로 9월에 있을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고 평가함.
- 러시아가 구제금융 조치로 인해 큰 손실이 예상되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이 나서서 구제금융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입장을 급선회함에 따라 키프로스 구제금융 논란이 일단락되었음. 이는 정치적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키프로스가 러시아의 제1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가 단기간에 키프로스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단절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으며, 오히려 키프로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2016년 예정되어 있는 25억 유로 차관의 만기가 연장될 경우 키프로스의 2016년 국채 만기 규모가 약 30억 유로에서 5억 유로로 감소됨(그림 8 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피난처로 활용되던 키프로스에서 러시아계 자본의 이탈 가능성은 충분히 상존하며, 러시아가 이번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조치를 계기로 해외자금처를 다른 나라로 옮길 가능성이 높음.

■ (전망: 단기적으로 위기 완화 및 중기적 위협요인 상존) 은행구조조정 및 예금에 대한 헤어컷을 통해 키프로스의 구제금융이 합의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완화된 것으로 판단되나, 은행영업이 재개되는 3월 28일 이후 키프로스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임.

-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진행 결과에 따라 유럽의 증시가 혼조세를 나타내는 반면, 유로-달러 환율이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며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지만 하락폭은 다소 둔화되고 있음.
 -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증시하락은 키프로스 구제금융 방식의 확대적용 가능성이 시장에 반영된 것이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이 이와 같은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어 향후 반등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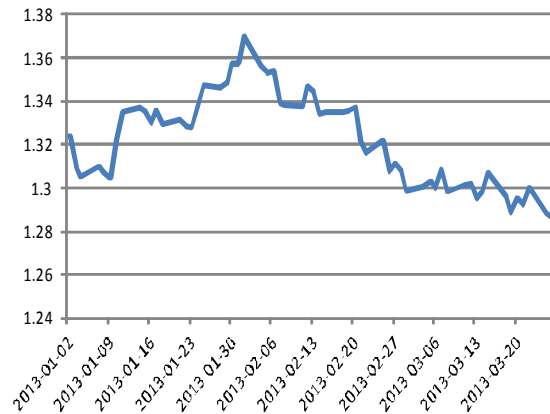
- 유로-달러 환율은 1차 구제금융안 합의가 이루어진 3월 5일에 1.3066을 기록한 이후 구제금융 부결과 러시아와의 정치적 갈등이 악재로 작용하여 하락세로 전환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락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림 9. 유럽의 주식시장 추이('13.1.1 = 100)



자료: Datastream(2013).

그림 10. 유로-달러 환율 추이



자료: Datastream(2013).

- 키프로스 정부의 자체 자금마련 계획에도 불구하고 트로이카가 요구한 58억 유로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마련 계획 및 구제금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PIMCO 및 Morgan Stanley가 실시한 키프로스 은행에 대한 재무건전성 테스트 결과 최소 65억 유로, 최대 120억 유로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키프로스 은행이 필요로 하는 총자본확충규모가 100억 유로인 점을 감안할 경우 트로이카가 요구한 58억 유로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3월 28일 정오까지 은행영업이 중지된 상황에서 은행영업이 재개될 경우 키프로스에서 뱅크런이 발발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에 키프로스 정부는 유로존 국가로는 처음으로 자본통제계획을 발표함.
- 키프로스 정부는 지난 3월 16일을 시작으로 3월 28일 정오까지 은행영업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림. 이 조치에 대해 월가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함.
- 키프로스 정부는 은행영업 재개를 앞두고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통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함.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 한도(월 3,000유로), 현금 인출액 한도(일 300유로), 해외여행자금 제한(1회 3,000유로), 무역 대금결제를 제외한 일체의 국외송금 금지 등이 포함됨.
- * 자본통제기간에 대해서는 키프로스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으나, 최소 4일에서 최대 7일에 이를 것으로 해외언론들이 보도함.
- * 키프로스 정부는 은행영업 정지 기간에도 ATM기를 통한 예금인출은 허용했으나, 구조조정 대상인 키프로스 은행은 120유로, 라이키은행은 100유로로 하루 인출한도를 제한하고 있었음.
- 단기적으로 키프로스 정부가 원활하게 은행구조조정에 성공한다면, 키프로스 위기확산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면서도 대규모 자본이탈에 따른 위기가능성은 상존함.
- 구제금융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은행산업이 안정을 회복할 수 있겠으나, 새로운 경제개발 모델의 개발은 키프로스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KIEP**